

# 포로 된 언약 백성의 회복과 도전 -에스라-

에스라 10:1-4, 요한복음 2:19-22

정운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이 많으나,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사,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소망과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새 힘과 소망,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붙잡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명단을 적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 하셨으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의 힘과 경제와 산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본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과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그 안에 있는 법궤는 사라졌고, 율법의 말씀과 성전 기물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 처참한 포로의 삶을 70년 동안 살았다. 그러나 그 포로생활 중에도 다니엘, 에스더 같은 남은 자들이 일어났고, 그들 덕분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우선 에스라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에스라 1:1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온다. 스:1:1을 읽어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한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방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안 하면 이방인을 자극해서라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메대(메디아)라는 왕국이 원래 그 당시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였는데, 그때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꾸었는데, 만다네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 딸이 소변을 본 것이 온 땅을 가득 채운 것이다. 그래서 점술가에게 물었더니, 만다네에게서 태어날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자기 아들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 꿈대로 되면 자기의 왕권과 왕국이 무너질 테니까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속국 바사(페르시아)나라에 시집을 보냈다. 그런데 또 꿈을 꾸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포도농쿨이 나와서 전 세계를 감싼 것이다. 점술가의 해몽이 지난 번 해몽과 똑같았다. 그래서 딸의 소식을 들었더니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안 되겠다, 아이를 낳으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하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받은 신하가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자기 종에게 아이를 들에 버리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데 이 종이 이 갓난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고 키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는 페르시아로 가서 자라났는데, 결국 이 사실을 아스티아게스가 알게 된다. 분노한 아스티아게스는 그 신하를 불러 식사를 하사했는데, 알고 보니 신하의 아들을 죽여서 만든 요리였다. 이것을 알게 된 그 신하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반드시 이 원한을 복수하리라고 마음을 먹는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으로서 자란 고레스가 바사를 차지하고, 이제 메디아를 정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아스티아게스에게 원한을 가진 그 신하가 내통하여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는 단숨에 메디아를 정복하고, 사르디스(성경의 사데 지역)까지 정복했으며, 바벨론까지 무너뜨리게 된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이다. 이 사람이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손가락이 글을 쓰지 않나?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모자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후, 그 땅을 자기 총독 다리오에게 맡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메대 출신이었던 바사 사람 다리오가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된다.

이러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때는 고레스왕 원년이었다.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한 것이다. 왜 그렇게 했겠는가? 대제국의 원년이다. 많은 나라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당시에는 종교가 목숨이었는데,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는 유화정책을 썼던 것이다. 고레스는 그런 현명한 왕이었다. 다리오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 소원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다. 고레스가 정치적인 결단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한다. 들어보면 안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고레스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믿고 명령했다. 모든 성전 기물까지 돌려주면서 진심을 다해서 도와준다. 본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에스라의 전체 내용이며, 둘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아야 할 부분이다.

## 1.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

(1) 1장은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고레스의 명령이다. 다 돌아가라고 했다.

(2) 그런데 2장을 보니까, 돌아가겠다는 백성의 숫자가 약 5만 명 뿐이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는데, 최소한 5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니까 거의 안 돌아간 것이다. 왜 그랬겠나? 포로와 노예는 다르다. 포로는 총리도 될 수 있었다. 유능한 군인도 될 수 있었다. 자유롭게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심지어 종들도 부릴 수 있었다. 이렇게 돌아갔던 5만 명이 현금한 액수도 상당히 많다. 이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해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계산이 돌아간 것이다. 성전을 재건하려면 돈도 들고 노력봉사도 해야 한다. 먼 길을 가려면 지금 마련한 땅도 집도 다 팔아야 한다. 우리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전 짓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캠프하자, 훈련 받자 해도 잘 안 한다. 그게 우리 체질이고 각인이다. 영적인 상태가 순종하는 상태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란다.

(3) 3장에서는, 이들이 가서 처음부터 건축을 한 게 아니었다. 처음 7개월 동안 정착을 했는데, 그 후에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백성들을 소집한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1년 7개월 동안 예배를 먼저 회복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시 기도를 회복한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터전만 만든 후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기초를 세우는데, 이것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 목소리가 같이 섞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이어서, 그 때를 생각하며 울었던 것이다. 이것이 3장까지의 광경이다.

(4)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나? 하지만 안 도와주실 때가 많다.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해 주신다. 4장에, 휘방꾼들이 온다. 앗수르의 침략 이후 생겨난 앗수르인과 이스라엘인들의 혼혈 민족이다. 이들이 와서 자기들도 성전을 같이 짓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보이는 부분이다.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동기가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신앙을 선택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온다. 그래서 동기는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건축을 같이 하면서 돈을 좀 벌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지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이권이 막힌 것을 보고 방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바뀔 때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한 것이다. 그래서 십여 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5) 이렇게 된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다. 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충만해진 백성들이, 허락의 조서를 다시 받기도 전에 건축을 시작한다. 그러니 총독이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성전을 다시 짓고 있구나 싶은 것이다. 그래서 누구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냐 하고 힐문을 한다. 그래서 리더, 중직자들이 대답하는데, 페르시아 나라의 초대 임금이었던 고레스 왕의 조서가 그 근거라고 대답한 것이다.

(6) 그래서 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소식을 보고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 야기한 조서 내용을 함께 올렸는데, 다리오 왕이 문서참고에 사람을 보내어 그

조서가 사실인지를 조사해 보고는 사실이었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다. 5장은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것이며, 6장은 고레스왕의 조서를 발견한 장면이고,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여 유월절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 것이다.

(7)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로운 문제가 있었다. 이 남은 백성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아직도 안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다. 그 후로 이 무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인물이 바로 에스라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에스더가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었지만, 에스더의 아들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역사를 보면, 에스더의 아들이 아니라 폐위되었던 전 왕비 와스디의 아들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새로 즉위할 왕이 복수를 할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진다. 이때 학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가 등장한다. 사실 1차 귀환 때 안 갔던 집안이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모든 율법의 자료들, 구약의 모든 자료들이 다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39권을 거의 정리한 것이 에스라다.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하여 말씀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8) 그래서 8장에는, 돌아갈 명단을 다 입수한다. 그런데 보니까 레위인이 여기에 한 명도 없었다. 스8:15-20이다.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 아닌가. '돌아 가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안 간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인 중에서 총명한 사람, 엘리트, 말씀 전할 사람을 다시 뽑아서 함께 가게 된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금식을 선포한다. 가는 길은 만데 재산이 많으니 가는 길에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움직여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이다.

(9) 9장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다. 에스라는 5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통합종교로 가 버린 것이다. 그 땅의 우상종교와 혼합되어 섞이고 있으니, 이것을 보고 통회자복하며 울면서 회개한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방 여자들을 다 내보내게 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그 후손들에게 우상 종교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역사에 없어지는 민족이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섞인 민족이 된다.

(10) 그래서 에스라의 말과 같이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고 언약을 지킬 것을 결단하도록,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비통을 넘기면서 말한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중직자가 되기를 바란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도록,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목사님을 도울 테니 앞장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내가 C국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는 곳이다. 발각되면 추방되고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니까. 여하튼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유대인 한 명을 보았다. 공항에서 성경을 들고 계속 읽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성경 읽으면 광신자처럼 여겨지니까 숨기고 다니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에스라를 생각했다. '아, 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더 감사하다.' 왜냐? 신약 본문을 우리가 읽었다. 진짜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정확한 복음, 정확한 성전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는 현장이 곧 교회다. 거기에서 말씀운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미션 홈이 되어야 한다. 현장이 회당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런 도전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종교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동기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다.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실패도 문제도 어려움도 감사하면서 믿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지도 않았던 큰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 2. 에스라서의 영적 교훈과 메시지

(1)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추기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것이다. 포로되어간 것이 온 민족이 복음을 붙드는 큰 축복의 계기가 되었지 않나.

(2)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강대국은 사라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는 그 축복의 계획 속에 있다. 세상 나라, 세상의 대기업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을 돕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반대와 방해가 오히려 축복이 된다.

(3) 하나님은 성전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4)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방해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5)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너무 잘 되면 교만해지니까 잠시 막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끝까지 성령인도를 받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6) 말씀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에스라를 부르신 것이다.

(7)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일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도 없었다. 지난 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경제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생각해봤는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빚지고 대출받아서 방주를 짓는데, 너무 빚을 많이 저서 부도가 나기 직전에 홍수가 나서 부채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웃음) 그런 생각도 해 봤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된다. 이 응답을 항상 체험하시기를 바란다.

(8) 우리는 세상 생활이 별 문제 없는 포로 생활이라 해서 안주하면 안 된다. 잘 산다 할지언정 여전히 포로다. 네피림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바라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은 치실 것이다. 그 전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9)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로 귀환에도 70년이 걸렸고, 성전 재건에도 몇 십 년이 걸렸다. 총 기간이 140년에서 200년이 된다. 그 긴 포로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도 예비된 제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현장에 그런 자가 다 예비되어 있다. 그런 만남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이번 주에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회복과 도전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다.

(1)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린다. 교회당이 바로 예배당이다.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말고 목숨걸고 하라. 모든 제사를 회복했던 것처럼, 정시기도를 회복해 보라.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수요일예 금요일기도회에도 나와 보라. 새벽기도를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해서 나와 보라. 지교회 모임도 해 보라. 결단하고 목숨을 걸어 보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실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다. 예배에 성공했는데 계속 응답을 받고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램넌트의 소식을 들었다. 램넌트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바르게 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도 뭔가 안 되고 꼬인다면, 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는다. 그 뜻을 확실하게 발견하라.

(2) 말씀운동을 회복해야 한다. 대충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 유대인처럼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가 실천하고 따라가야 한다. 제발 성경을 좀 읽어 보라. 기도수첩도 하라. 계속 말씀을 들어라. 나는 하루 종일 그 일을 한다. 종일 읽고 듣고 전달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3) 현장을 회복해야 한다. 에스라는 끊어 버리라고 했다. 갱신하라고 했다. 스 10:11을 보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여러분이 끊어야 할 것을 좀 끊어 버려라. 버릴 것을 버려라. 그것이 거룩성이다. 체질 뿌리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몰래 숨겨놓은 우상, 부적이 있으면 버려라. 불신앙적인 것, 육적인 것을 끊고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 안에서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불러주시고,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과 마귀에게 포로, 노예, 종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직장, 상사, 공부, 인간관계, 경제, 건강, 정신, 가정 문제로 인해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을 정복하고 디스립며 세상을 리드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